

주제강의: 교회 사역 안에서 여자의 섬김 Women Serving in the Ministry of the Church – 2

(adapted from “Report of the Ad Interim Committee on Women Serving in the Ministry of the Church to the For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2017))

1. 구약에 나오는 여자의 역할 The Roles of Women in the Old Testament
 - 1) 구약에서 여자는 제사장이나 정당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선포하는 설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리더요 선생으로 섬겼다. 어떤 이들은 뛰어난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갔고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기도 하였다. 훌다, 십보라, 미리암, 에스더 등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되었음을 증거한다.
 - 2) 훌다 Huldah
 - a. 왕하 22:14-20 에 나오는 대로 훌다는 왕의 사자들에게 사적으로 말하였다. 그녀가 왕의 대신들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왕의 대신들이 그녀에게 찾아왔다.
 - b. 훌다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그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아 왕에게로 돌아가서 전했다.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권위와 책임은 요시아 왕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훌다는 어떻게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지 선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왕과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조언 하였다.
 - 3) 데보라 Deborah
 - a. 훌다와 마찬가지로 데보라도 선지자라 불린다. 이스라엘의 리더이자 사사였다.
 - b. 그녀는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재판하였다.
 - i. 사 4:4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5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벤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 c. 하지만 사사기는 그녀가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가르치거나 예언하였다고 하지 않는다. 설교하거나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d. 바락과 나는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데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말씀 하셨다.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만 명을 이끄러 다블 산으로 가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들은 바락은 데보라가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데보라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다. 함께 가긴 하였으나 병사를 인도하지는 않았다.
 - i. 사 4:9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2.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 Differences between the OT Prophets and Priests
 - 1) 하나님은 공적, 항존적인 리더십을 가지지 않았던 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선지자의 무리들은 보여지는 권위를 가지지 않았다. 다른 선지자들은 말씀은 전했으나 사역이 계속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에서는 가르치는 권위는 예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은 항상 검증을 받아야 했다.
 - a. 신 13:1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2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 너는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4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5 그런 선지자나 꿈 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꺾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 b. 신 18:20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2)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으며 그들은 남자들이었다.

- a. 말 2: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가 됨이거늘
- b. 신 33:10 (레위 자손에 대해 모세가 축복하며 말할 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3)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는 역할은 제사장들에게 있었으며 그들은 남자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권위있게 선포하는 것은 청중이나 공식적인 상황에 상관 없이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그 직분을 주시며 유지하게 하셨다. 선지자들은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여선지자의 역할을 하였으나 항존적,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

3. 예수님의 지상 사역 안에서 여자의 역할 Roles of Women during the Earthly Ministry of Jesus

1) 예수님은 열두 명의 남자들을 사도로 선택하셨다. 하지만 여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a. 재력이 있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함께 동행하였다.
 - i. 눅 8:1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2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 b.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이었다. (요 20:1-18)
 - i. 요 20:1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 c.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증거하였다.
 - i. 요 4: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 d.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예화와 비유에서 여자들을 많이 등장시키셨다.
 - i. 빵을 굽는 여자 (마 13:33)
 - ii. 곡식을 가는 여자 (마 24:41)
 - iii. 신랑을 기다리는 여자들 (마 25:1-10)
 - iv. 잃어버린 돈을 찾는 여자 (눅 15:8-10)
 - v.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자 (눅 18:1-5)
 - vi. 자신의 모든 것(두 렵돈)을 헌금함에 넣는 여자 (눅 21:1-4)

- e.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고 여자들을 자유롭게 대화하셨다.
 - i. 슬퍼하는 과부이자 어머니를 만났다. (눅 7:11-15)
 - ii. 죄인인 여자가 자기 발에 향유를 붓게 하셨다. (눅 7:36-50)
 - iii. 오랫동안 병을 앓는 여자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셨다. (눅 8:43-48. 참조 13:10-16)
 - iv.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하셨다. (요 4:7-26)
 - v. 가난한 여인들을 살피셨다. (눅 21:1-4)
 - vi. 십자가로 가실 때 그를 위해 슬퍼하던 여인들에게 말씀 하셨다 (눅 23:27-31)
- f. 예수님은 남자들의 전통 때문에 그의 사역을 여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나 여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

4. 사도 시대의 여자의 역할 The Roles of Women during the Apostolic Era

1) 배경 Background

- a. 브리스길라는 신학적으로 뛰어난 제자였다. 그의 남편 아굴라와 함께 아볼로의 가르침에 교리적인 부족함이 있는 것을 교정하였다.
 - i. 행 18:26 그가(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 b.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참하였다.
 - i. 행 18:18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 c. 여자들이 은사를 사용하여 신실하게 교회 안에서 사역하여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여야 하는가?

2)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4:26-40

- a.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성령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부어 주셨다. 요엘 2:28-29 의 성취이다.
 - i. 요엘 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 b.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것은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도 적용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그들이 그들의 은사를 사용할 것을 격려했고 교회가 유익이 되도록 할 것을 명하였다. 은사는 질서있게 사용되어야 했다.
 - i. 고전 14:40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 c. 그것은 여자가 어떤 때는 조용히 있어야 함을 포함하였다.
 - i. 고전 14:34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 d. 하지만 바울은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할 것(고전 11:5), 모든 사람이 예배 중에 찬송과 가르침과 계시와 또는 해석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전 14:26). 동시에 여자가 잠잠할 것을 명한다(고전 14:34).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i. 고전 11: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 ii. 고전 14: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 e. 해석 1: 고린도전서 11 장과 14 장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예배였다.
- i. 11 장은 좀더 사적인, 비공식적인 예배였으므로 여자들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간증 또는 나눔시간이었다. 14 장에서는 좀더 짜임새를 갖춘 공예배가 나오며 한 사람이 그 날 주된 메시지를 전한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제한되며 그 중 여자는 없었다.
 - ii. 이 해석은 예배 중에 질서있는 구조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며 어떤 리더들은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전 14:26 절과 35 절을 잘 조화시키지 못한다.
- f. 해석 2: 고전 14:35 에서 명령하는 잠잠함에 제한을 둬서 26 절과 35 절을 조화시킨다.
- i. 바울이 말하는 잠잠함이란 설교하지 말라는 것이거나(칼빈 등 예전 해석자들), 또는 예언을 시험하는 때에 잠잠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arson, Grudem 등 최근 해석자들).
 - ii. 바울은 여자들도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모든 가르침은 검증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장로들(감독들)의 임무였다.
 - iii. 고전 14 장을 살펴보면 여자는 예언할 수 있으나 (11:5) 예언이 시험되는 때에는 잠잠하여야 했다(14:34)
- g. Hurley 의 고전 14 장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 주제 (14: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 ii. 이슈 1: 방언 (14:27-28)
 1. 27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 방언을 하는 사람의 수: 2-3 명
 3. 이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하게 하고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 iii. 이슈 2a: 예언 (14:29)
 1. 29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2. 예언하는 사람의 수: 2-3 명
 3. 이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그 예언을 검증해야 한다.
 - iv. 이슈 2b: 예언에 대한 추가 설명 (14:30-33a)
 1. 30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31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2. 예언은 한 사람씩 하라.
 3. 목적: 모든 이가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4. 이유 1: 예언자의 영은 예언자 자신이 제재할 수 있다.
 5. 이유 2: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 v. 이슈 2c: 예언을 분별함에 대한 추가 설명 (14:33b-35)
 1. 33 ...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2. 분별함에 대해: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자는 잠잠하라
 3. 여자의 잠잠함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복종할 것이다.

- vi.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리드하라고 주신 뜻을 가리킨다.
- vii. 바울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잠잠함이란 예배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제한된 잠잠함이다.